

중년여성의 폐경관리,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의 관계

여정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Correlational study on Management of Menopause, Sex Role Attitude and Self-Esteem in Middle-aged Women

Jung-Hee Yeo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90-756, Korea

Abstract

Purpose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urve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management of menopause, sex role attitude, and sex-esteem in middle-aged wome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June 14, 2003 to June 30, 2004. The sample were 207 middle-aged women who were 40-64 years. Data collection instruments were Song's management of menopause scale, Moon's sex role attitude scale, and Noh's self-esteem of quality of life scal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 10.0 PC+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in management of menopause was 2.13. For the management of menopause regarding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The mean score of sex role attitude was 3.31. For the sex role attitude regarding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educational level, number of child, income, marital duration, menstruation state, and number of pregnancy. The mean score of self-esteem was 3.29. For the self-esteem regarding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al level, income.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anagement of menopause and self-esteem($r=0.305, p<0.01$).

Conclusions: Self-esteem was important for middle-aged women to increase management of menopa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rvention considering self-esteem for promoting management of menopause in middle-aged women.

Key words : Management of menopause, Sex role attitude,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jheeyeo@cheju.ac.kr

서 론

폐경은 중년기 여성들의 생활주기에서 경험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되는 하나의 사건이며, 초경과 함께 정상적인 성장발달의 한 과정이다 (1).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난소기능의 점진적인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 즉 혈관계의 변화, 위축성의 변화, 뼈의 기능 변화 등과 함께 개인적인 변화나 생활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된다. 장혜숙 등 (2)에 의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신체, 정신, 정서적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증상들은 치명적인 장기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여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상발달과정의 중년기는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며, 최대의 자존심과 가치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나 (3)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에 대한 삶을 숙고해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대와 현실에서의 차이로 인해, 그리고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유일한 매개체이었던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상실을 경험함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이 오히려 저하된다 볼 수 있다 (4). 이는 성역할의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의 경우 더 심각할 수 있다. 중년기 여성들은 그들의 역할이 가사역할로만 제한 받는 환경에서 가정에서 불만족을 느낄 경우 만족을 얻을 만한 다른 역할이 없고, 가족체제와 역할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가족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자아에 대한 존중감은 더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남녀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들보다 우울증과 건강문제가 많고 자존감과 자율성이 낮다고 보고한 김성천 (5)의 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은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성이 보고되어 중년기 여성의 자가 폐경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Maunz와 Woods (6)에 따르면 사회구조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

하지 못한 여성들은 건강증진 행위를 잘 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행위를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박현숙 (7)은 자아존중감이 적을수록 건강증진 행위를 잘 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환경에서의 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중년 여성의 폐경관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폐경관리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폐경관리와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여성 중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40세 이상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되 수술로 인해 인공 폐경되었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는 여성은 제외하였다. 자료수집은 5명의 연구 보조자를 통해 마을회관, 보건소, 여성회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를 수락한 대상자에게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6월 14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배부된 250부 설문지 중 234부 회수되었으나 대상자의 조건이 부적절하거나 미비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0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폐경관리 측정도구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송애리 (8)의 폐경관리

측정도구 17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5개의 영역인 활동과 운동관리, 식생활 관리, 성생활 관리, 전문적 건강관리, 자가 조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1점에서 '항상 하고 있다' 4점까지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폐경관리 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0.81$ 이었다.

2) 성역할 태도 측정도구

Osmond와 Martin (9)의 Sex Role Attitude Scale을 기초로 문영표 (10)가 수정 보완한 17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아주 그렇다' 1점에서 '아주 그렇지 않다' 5점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0.81$ 이었다.

3)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중년성인 대상으로 한 노유자 (11)의 삶의 질 측정도구 47문항 중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8문항을 이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한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0.86$ 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주요변인인 폐경관리와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과의 차이검정은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를 사용하였다.
- 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45세에서 49세가 전체의 35.7%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 35.7%이었으며, 직업을 가진 경우는 58.5%로 나타났다. 75.8%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수는 1-2명과 3-4명이 전체 비율의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2.1%로 대가족보다 많았으며, 가족월수입은 전체의 반 정도가 101만원에서 300만원사이 수준이었다. 결혼기간은 20년-29년이 58.9%로 가장 많았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7)

Characteristics		N(%)
Age	40-44	33(15.9)
	45-49	74(35.7)
	50-54	59(28.5)
	55 or over	41(19.8)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54(26.1)
	middle school	47(22.7)
	high school	74(35.7)
	college or over	32(15.5)
Occupation	yes	121(58.5)
	no	56(35.4)
	missing	6(2.9)
Religion	yes	157(75.8)
	no	47(22.7)
	missing	3(1.4)
Number of child	1-2	88(42.5)
	3-4	99(47.8)
	5 or over	20(9.7)
Mode of family	large family	30(14.5)
	nuclear family	170(82.1)
	missing	7(3.4)
Income (10000won/month)	100 or less	16(7.7)
	101-300	120(58.0)
	301 or over	33(15.9)
	missing	38(18.4)
Marital duration	10-19	27(13.0)
	20-29	122(58.9)
	30 or over	55(26.6)
	missing	3(1.4)

대상자의 초경연령은 15-16세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월경이 있는 경우는 54.1%로 없는 경우보다 약간 많았고, 임신횟수는 1-2번이 23.2%, 5번 이상이 30.9%, 3-4번이 42.0% 순이었다 (Table 2).

Table 2. Obstetr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7)

Characteristics		N(%)
Menarche age	13-14	34(16.4)
	15-16	89(43.0)
	17 or over	73(35.3)
	missing	11(5.3)
Menstruation state	yes	112(54.1)
	no	92(44.4)
	missing	3(1.4)
Number of pregnancy	1-2	48(23.2)
	3-4	87(42.0)
	5 or over	64(30.9)
	missing	8(3.9)

2. 대상자의 주요변인 정도 및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1) 대상자의 폐경관리, 성역할 태도 및 자아 존중감

대상자의 폐경관리 정도는 4점에 평균평점 2.13 점이었으며, 성역할 태도는 5점에 평균평점 3.31 점, 자아존중감은 5점에 평균평점 3.29점이었다 (Table 3).

Table 3. Mean scores of management of menopause, sex-role attitude, and self-esteem
(N=207)

Variables	M (SD)
Management of menopause	2.13 (0.42)
Sex-role attitude	3.31 (0.47)
Self-esteem	3.29 (0.57)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폐경관리, 성역할 태도 및 자아존중감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산과적 특성에 따른 폐경관리,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를 사용하였다 (Table 4).

폐경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연령 ($F=5.86$, $p<0.01$)뿐 이었으며, 연령에서 Scheffe 사후검정결과 50-54세군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폐경관리 정도가 높았다.

성역할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연령 ($F=6.73$, $p<0.01$), 교육정도 ($F=13.05$, $p<0.01$), 자녀수 ($F=4.67$, $p<0.05$), 수입 ($F=11.52$, $p<0.01$), 결혼기간 ($F=6.13$, $p<0.01$), 월경상태 ($F=3.18$, $p<0.01$), 임신횟수 ($F=3.66$, $p<0.05$)이었다. 연령에서 Scheffe 사후검정결과 55세이상 군 ($M=3.02$, $SD=0.49$)이 다른 군과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정도에서는 대졸이상 군 ($M=3.63$, $SD=0.43$)이 초등졸이하 군 ($M=3.06$, $SD=0.44$)과 차이를 보였으며, 수입에서는 100만원이하 군 ($M=2.91$, $SD=0.50$)이 다른 군간에, 결혼기간에서는 10-19년 군 ($M=3.47$, $SD=0.39$)과 30년이상 군 ($M=3.13$, $SD=0.52$)간에, 월경상태에서는 있는 경우 ($M=3.42$, $SD=0.44$)와 없는 경우 ($M=3.20$, $SD=0.49$)간에, 임신횟수에서는 1-2명 군 ($M=3.47$, $SD=0.47$)과 5명이상 군 ($M=3.22$, $SD=0.47$)간에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교육정도 ($F=5.15$, $p<0.01$)와 수입 ($F=6.62$, $p<0.01$)이었다. 교육정도에서 Scheffe 사후검정결과 대졸이상 군 ($M=3.63$, $SD=0.72$)이 다른 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수입에서는 301만원이상 군 ($M=3.61$, $SD=0.62$)이 100만원이하 군 ($M=3.06$, $SD=0.75$)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3) 대상자의 폐경관리, 성역할 태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폐경관리와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폐경관리와 자아존중감은 $r=0.305(p<0.01)$ 로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Table 4. Differences in management of menopause, sex-role attitud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N=207)

Characteristics	Management of menopause			Sex-role attitude			Self-esteem		
	M(SD)	Scheffe t or F		M(SD)	Scheffe t or F		M(SD)	Scheffe t or F	
Age	40-44	2.02(0.43)a		3.42(0.39)a			3.38(0.57)		
	45-49	2.03(0.40)a	a<b	3.38(0.42)a	a>b	6.73**	3.30(0.69)		
	50-54	2.32(0.42)b		3.38(0.49)a			3.30(0.50)		0.70
	55 or over	2.13(0.40)		3.02(0.49)b			3.18(0.46)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2.18(0.38)		3.06(0.44)a			3.19(0.47)a		
	middle school	1.98(0.38)		3.21(0.44)	a<b	13.05**	3.18(0.50)a	a<b	
	high school	2.18(0.48)	2.16	3.41(0.42)			3.26(0.56)a		5.15**
	college or over	2.13(0.35)		3.63(0.43)b			3.63(0.72)b		
Occupation	yes	2.11(0.46)		3.29(0.47)		0.75	3.30(0.63)		-0.28
	no	2.15(0.36)	0.70	3.34(0.47)			3.28(0.51)		
Religion	yes	2.16(0.43)		3.32(0.46)		0.35	3.32(0.56)		1.27
	no	2.03(0.39)	1.81	3.29(0.52)			3.19(0.62)		
Number of child	1-2	2.13(0.44)		3.43(0.47)			3.36(0.65)		
	3-4	2.14(0.40)	0.49	3.22(0.47)		4.67*	3.26(0.53)		1.33
	5 or over	2.03(0.42)		3.25(0.36)			3.14(0.41)		
Mode of family	large family	2.08(0.42)		3.31(0.46)		-0.05	3.35(0.45)		-0.58
	nuclear family	2.13(0.42)	-0.56	3.32(0.48)			3.28(0.60)		
Income	100 or less	1.95(0.34)		2.91(0.50)a			3.06(0.75)a		
	101-300	2.12(0.44)	1.70	3.33(0.40)b	a<b	11.52**	3.26(0.51)	a<b	6.62**
	301 or over	2.20(0.42)		3.56(0.46)b			3.61(0.62)b		
Marital duration	10-19	2.03(0.36)		3.47(0.39)a			3.39(0.61)		
	20-29	2.13(0.45)	0.83	3.36(0.44)	a>b	6.13**	3.30(0.62)		0.99
	30 or over	2.16(0.37)		3.13(0.52)b			3.21(0.44)		
Menarche age	13-14	2.14(0.43)		3.46(0.46)			3.42(0.40)		
	15-16	2.13(0.42)	0.15	3.30(0.46)		1.95	3.30(0.63)		1.52
	17 or over	2.10(0.40)		3.26(0.48)			3.21(0.51)		
Menstruation state	yes	2.08(0.42)		3.42(0.44)		3.18**	3.32(0.62)		1.11
	no	2.19(0.42)	-1.82	3.20(0.49)			3.23(0.50)		
Number of pregnancy	1-2	2.12(0.45)		3.47(0.47)a			3.39(0.64)		
	3-4	2.12(0.40)	0.00	3.31(0.46)	a>b	3.66**	3.28(0.53)		2.11
	5 or over	2.12(0.41)		3.22(0.47)b			3.17(0.53)		

* p<0.05, ** p<0.01

고찰

Table 5. Correlation among management of menopause, sex-role attitude, and self-esteem

Variables	Management of menopause	Self-esteem
Management of menopause	0.305**	
Sex-role attitude	0.060	0.143

** p<0.01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폐경관리는 4점에 평균평점 2.13점으로 성미혜 (12)과 최선주와 박경민 (13) 연구보다 낮은 수치로 전반적으로 폐경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폐경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령은 송애리 (8)와 최남연 등 (14)에서 보고한 교육정도, 월수입과 차이가 있었으나 성미

혜 (12)와 일치하였다. 한편 50-54세 군이 50세이하 군에 비해 폐경관리 정도가 높고 월경이 사라진 후 폐경관리 정도가 높았던 결과는 폐경 직전이나 직후 증상이 발현될 때 폐경을 관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폐경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증상 및 만성질환은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므로 자가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관리의 강도를 높이도록 하며, 관리 시기를 좀 더 앞당겨 증상 대처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성역할 태도는 5점에 평균평점 3.31점으로 서임숙과 오현이 (15)의 2.95점 보다 높은 경우로 전반적으로 근대적인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는 부부관계 향상과 결혼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16), 우울정도를 감소시키고 (15),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7-19)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며, 근대적 성역할 태도로 인해 폐경후 역할 변화에도 잘 적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성역할 태도는 55세이상 군이 다른 군에 비해 낮았으며, 대졸이상 군이 초등졸이하 군에 비해 높았고, 100만원이하 군이 다른 군에 비해 낮았으며, 결혼기간이 10-19년 군이 30세이상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임숙과 오현이 (15)의 연구결과인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높음과 일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5점에 3.29점으로 척도의 중앙치 2.5 점에 비해 다소 높았다. 자아존중감을 변인으로 사용한 대부분 연구는 4점 척도로 측정되어 2.97점 (20), 2.95점 (21), 2.98점 (7)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교 해석하기 어려웠다. 자아존중감은 교육정도와 경제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경제상태에서 차이를 보인 박금자 등 (20)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교육정도에서의 차이는 강경자와 이은진 (22)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폐경관리와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폐경관리와 자아존중감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폐경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를 잘함을 보고한 다른 연구 (7, 23)와 일치하였다. 반면 폐경관리와 성역할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강인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여성이 건강증진 생활방식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선행연구 (24, 25)와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 태도와 자아 존중감간의 상관관계 또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남녀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들보다 자존감과 자율성이 낮다는 보고 (5)와 다른 결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자아 정체감과 존중감을 확립하고 개인의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나 (23)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약 50세로 남성우위의 사회, 가부장제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 성역할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성역할에 대해 수용하고 만족하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녀나 남편 또는 가족에 대한 가치를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상자의 폐경관리 정도는 낮았으며,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에 가까웠고, 자아존중감은 보통 수준보다 높은 편이었다. 폐경관리 증진에 관련된 변인은 자아 존중감으로 나타나 중재변인으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 증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고 이는 중년여성의 건강 행위를 증진 유지시키고 좌절감을 극복하며, 적응력의 증가로 현실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성역할태도는 폐경관리,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달랐으며, 이에 대해 추후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1. 이경혜, 박영주, 변수자 등. 여성건강간호학(하).

- 서울:현문사. 1997.
2. 장혜숙, 김영희, 서영숙 등. 갱년기 여성의 건강 증진 생활양식, 자기효능, 가족기능, 폐경증상의 관계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0;6(4):606-617.
 3. 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중앙 적성출판사. 1989.
 4. Barkwick JM. *Reading on the psychology of women*. Harper & Row publishers. 1972.
 5. 김성천. 한국에서 성차별적 가족문제에 대한 펨니스트 가족치료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2.
 6. Maunz ER, Woods NF. Self-care practices among young adult women : Influence of symptoms, employment, and sex-role orientatio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88;9:29-41.
 7. 박현숙. 중년여성의 우울,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및 낙관성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간호학회지* 2002;11(3):352-362.
 8. 송애리. 폐경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7.
 9. Osmond MW, Martin PY.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5;37:744-758.
 10. 문영표. 도시부부의 성역할태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11. 노유자. An analytical study on middle-aged adults' quality of life in seoul areas.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8.
 12. 성미혜. 갱년기 여성의 폐경지식정도와 폐경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6(1):123-135.
 13. 최선주, 박경민. 갱년기 여성의 월경상태에 따른 폐경관리 수행과 요통과의 관련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4(1):71-81.
 14. 최남연, 최소영, 조혜진. 폐경기 여성의 폐경지식 정도와 폐경관리 실태조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8;4(3):402-415.
 15. 서임숙, 오현이.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과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4(1):103-115.
 16. 김태현. 노년학. 서울:교문사. 1997.
 17. 서수정.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18. 전은경.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19. Galambos NL, Almeida DM, Peterson AC. Masculinity, femininity, and sex role attitude in early adolescence: exploring gender intensificatio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1990;61:1905-1914.
 20. 박금자, 이지현, 김미옥 등. 중년여성의 지각된 생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2;13(2):354-362.
 21. 박금자. 중년기 여성의 우울 구조 모형.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22. 강경자, 이은진.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중년여성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류마티스건강학회지* 2000;7(1):5-24.
 23. Duffy ME.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on in midlife women. *Nursing Research* 1988;37(6):358-362.
 24. 서연옥.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생활방식, 강인성, 성역할 특성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6; 2(1):119-134.
 25. Pollock SE, Christian BJ, Sands D. Responses to chronic illness: analysis of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adaptation. *Nursing Research* 1990;37(5):300-304.